

루리 위키 >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줌줌 · 응모·실무 가이드

## 청년 주거정책, 지원 방식이 맞나

루리의 줌줌이 정리한 글



# 청년 주거정책, 지원 방식이 맞나

### 루리

청년이 가장 원하는 주거정책은 대출이지만 공공임대에 살고 싶다는 의향은 실제 거주 경험을 크게 앞선다. 대출·월세 지원·공공임대를 따로 늘리기보다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공개 자료로 맞춰 가는 쪽이 낫다.

청년이 가장 원하는 주거정책은 대출이지만 공공임대에 살고 싶다는 의향은 실제 거주 경험을 크게 앞선다. 대출·월세 지원·공공임대를 따로 늘리기보다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공개 자료로 맞춰 가는 쪽이 낫다.

2026-10-29 기준 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정책브리핑 게재), 국토교통부·복지로 안내를 인용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청년 세부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공식 확인」으로 남겼다.

## 1 주장

청년 주거정책은 지원 수단을 하나로 정하기보다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공개 자료로 점검하며 조합을 조정해야 한다. 청년이 겪는 주거 문제는 목돈 마련, 월 주거비, 안정적인 거처로 나뉘고 각각에 맞는 수단이 다르다. 대출은 목돈 문제에, 월세 지원은 월 주거비에, 공공임대는 거처의 안정에 닿는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 수요와 실제 이용 경험이 어긋나는 지점이 자료에서 보인다. 이 글은 그 어긋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조합을 평가하자고 주장한다.

## 2 근거

첫째, 청년의 수요는 대출에 쏠린다. 국무조정실이 2025년 3월 11일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만 19~34세, 전국 15,000가구 대상)에서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1순위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31.3퍼센트, 전세자금 대출 25.0퍼센트, 월세 등 주거비 지원 20.7퍼센트, 공공임대 공급 14.9퍼센트

순이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42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423>)). 같은 조사에서 점유형태는 부모 소유를 포함한 자가 49.6퍼센트였고 전세와 보증부 월세가 각각 23.8퍼센트였다. 보증부 월세의 평균 보증금은 2,900만 원, 월세는 41만 원이었다.

둘째, 공공임대는 의향과 경험의 차이가 크다. 같은 조사에서 공공임대에 살아 본 청년은 7.0퍼센트인데 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1.7퍼센트였다. 정책 1순위 응답이 14.9퍼센트에 그친 것은 공급이 부족해 선택지로 체감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이 해석은 조사 문항의 맥락을 더 확인해야 하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셋째, 월세 지원은 규모와 대상이 제한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았고,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이며 신규 수혜자는 전국 6만 명이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03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039>), <https://blog.bokjiro.go.kr/1828> (<https://blog.bokjiro.go.kr/1828>)). 월 20만 원은 조사에서 나온 평균 월세 41만 원의 절반 안팎이다. 서로 다른 조사와 제도의 숫자를 비교한 것이므로 방향을 보는 참고로만 쓴다.

넷째, 정책 요건은 계속 바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2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요건을 연 7천만 원까지 완화하고 청년월세 지원 등의 소득기준도 완화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92491](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92491)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92491](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92491))).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수치는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 3 반론과 재반박

대출과 현금성 지원을 늘리자는 쪽은 청년이 직접 필요하다고 답한 수단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설문의 1·2순위가 대출이라는 사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대로 공공임대를 늘리자는 쪽은 대출이나 현금 지원이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안정적 거처는 공급으로만 해결된다고 말한다. 이 영향의 크기는 이 글에서 공식 통계로 확인하지 못했다.

재반박은 이렇다. 어느 한쪽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기보다, 수요가 큰 대출은 상환 부담과 대상 범위를, 월세 지원은 지원 규모와 대상의 충분성을, 공공임대는 공급량과 입주 대기 현황을 같은 틀로 공개해 비교하는 것이 먼저다. 다만 각 수단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한 공식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의 후속 조사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 점에서 청년 주거정책은 수단을 추가하는 것보다 평가 체계를 갖추는 일이 앞선다.

## 4 결론

청년 주거정책의 핵심 질문은 어떤 수단이 더 좋으냐가 아니라 청년이 처한 어려움별로 수단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느냐다. 대출 수요는 크고, 월세 지원은 대상이 제한되며, 공공임대는 의향에 비해 경험적 적다. 이 간극을 공식 통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조합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점검이 쌓일 때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진다.

## 5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정책브리핑(국무조정실), 「청년 평균 소득 2625만 원·부채 1637만 원...취업자 비율 67.7%」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2025.3.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42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423>)
-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청년들에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30일부터 접수」 (2026.3.1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03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039>)
- 복지로 공식 블로그,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https://blog.bokjiro.go.kr/1828> (<https://blog.bokjiro.go.kr/1828>)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요건 완화):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92491](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92491)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92491](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92491))
- 국토교통 통계누리, 주거실태조사: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MetaView.do?hRslId=327>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MetaView.do?hRslId=327>)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링크 복사

네이버 블로그

밴드

X

Facebook

💬 다른 고민 보기 ·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 6 마감 임박 공모전

출처: 루리의 줌줍(sungprofile.cloud) ·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